



요약

사설

빛나라, 경청하라, 두려워 하지 마라.

양성 여정

오라토리오 사명 : 교육 카리스마.

나자렛. 하느님의 모든 가족

소개.

겸손하고 가장 뛰어난 피조물

통합생태학의 스승이신 마리아와 함께 걷기

1. 돌보는 어머니.

가족의 연대기

- 동티모르: 준관구 TLS의 아드마 신규회원 158명.

- 케냐 - “마리아의 부르심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2023 마리아 대회.

- 파푸아 뉴기니: 2023 아드마 청소년 캠프.

- 남부 멕시코: 아드마 선거 총회.

- 2024년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마리아 IX 대회: 등록.

사설

빛나라, 경청하라, 두려워 하지 마라.

P.1

P.3

사랑하는 여러분,

P.4

우리는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청년대회와 같은 보편교회의 중요한 행사들과, 9월 30일에 공식 임명될 예정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돈 앙헬 대주교 추기경 임명 등 우리 살레시오 가족에게는 예상치 못했던 중요한 사건들로 가득 찬 여름을 보냈습니다.

P.5

많은 사건과 함께 주님께서 성령과 자신을 신뢰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중재를 통해 당신의 여정에서 당신 백성에게 분배하시는 많은 은총을 베푸십니다.

P.7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8월 6일 세계 청년의 날 강론에서 ‘**빛나라, 경청하라, 두려워하지 마라**’는 세 가지 단어를 통해, 젊은이들이 세상과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P.7

P.8

교황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나십시오.** “오늘 우리는 삶에서 우리를 덮치는 무수한 어둠과 일상의 수많은 패배에 맞서기 위해, 작은 빛, 희망이 되는 한 줄기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빛으로 그것들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빛은 꺼지지 않는 빛이며 밤에도 빛나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P.8

P.9

경청하십시오. “인생에서 해야 할 모든 것이 이 말씀에 있으니, 그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든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계시며, 하느님이 아버지이시며 사랑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의 길을 보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약간의 비관주의의 공격으로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이 여러분, 낙담하고 자신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미소로 고통을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는 젊은이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젊은이 여러분(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싶어하는 젊은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노력과 상상력을 쏟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땅이 비를 필요로 하듯이, 교회와 세상이 필요로 하는 젊은이 여러분에게, 현재이자 미래인 젊은이 여러분에게, 예, 바로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젊은이들에게 전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새로운 출발이며, 살레시오 가족으로서 돈 앙헬 총장이 추기경으로 임명된 것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합니다. 돈 보스코의 아들과 딸로서 희망으로 빛날 수 있는 기회이며, 주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침내 두려움 없이 우리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야 할 사건이니, 총장님의 수용성과 순명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최근 성 막시밀리안 콜베가 그의 저서에서 “하느님만이 모든 것이시며, 그분만이 무한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주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시고, 시작과 끝이시며,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시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밖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구원자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궁극적인 목적이신 그분을 가리키는 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지상에 있는 그분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시며, 우리를 통하여 다른 영혼들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되기를 원하십니다. 형제여, 하느님의 자비로 우리가 얼마나 존엄하게 되었는지 생각해보십시오. 순명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한계를 넘어 무한한 지혜와 신중함으로 의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거룩한 뜻에 우리를 맡깁니다. 어떤 피조물도 거역할 수 없는 이 거룩한 뜻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그 어느 것보다 강해집니다.”

또한 성 막시밀리노는 마리아가 우리의 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선하심으로 자비를 베푸신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통해 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원의가 하느님의 뜻과 같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함으로써 우리는 성모님이 하느님의 손 안에 계셨던 것처럼 성모님의 손 안에서 거룩한 자비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모님의 인도를 받도록 내어맡기고, 성모님의 인도 아래 침착하고 안전하게 그분의 인도를 받도록 합시다. 성모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미리 보살펴 주실 것이며, 모든 염려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체적, 영적 필요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새로운 봉사를 준비하는 양헬 신부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살레시오 가족으로서, 곧 등록이 시작될 제 9회 파티마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 대회는, 우리를 새로운 사목적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아드마 프리마리아 회장, 레나토 발레라
아드마 프리마리아 영적활성자, 알렉산드로 구에바라**

양성 여정

오라토리오 사명 : 교육 카리스마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요한 3, 16-17)

아홉 살 어린이의 꿈은 전 세계 어느 살레시오 회의 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명상의 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의 거룩한 공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 요한은 소년들로 가득 한 넓은 뜰에서, 훗날 베키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이 친숙한 장소를 보게 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고, 그들은 천사들이 아니라 구체적인 모습을 지닌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놀고 싸우며 즐겁게 지내고 있었는데, 적지 않은 소년들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곧장 뛰어들어 힘으로 그들을 못하게 막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뜰에 빛나는 존귀한 남성이 나타나서, 소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려 줍니다. 그리고 빛나는 옷을 입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존귀한 남성과 여성은 요한에게, 친구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리더로서 그들의 선두에 서라고 초대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주먹다짐으로 하지 말고, 온유함과 사랑으로” 행동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죄의 추악함과 덕의 고귀함을 설명해 주라고 요청합니다. 요한이 자신은 가난하고 무지한 아이라고 하자 존귀한 남성은, 여성을 가리키며 스승을 주겠다고 합니다. “나는 네게 스승을 주겠다. 그분의 지도 아래 너는 슬기로운 사람이 될 것이며, 그분이 안 계시면 모든 지혜는 어리석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성은 소년에게 여성을 스승으로 줍니다. 여성은 요한의 일터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 줍니다. “여기가 바로 너의 일터다. 네가 일해야 될 곳이다. 겸손하고 강하고 굳건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라.”



마리아는 처음부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자신의 전문 분야이므로, 새로운 카리스마 탄생의 중재자가 됩니다.

이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 소년들과의 관계, 주님(나중에 어머니 합류), 주님의 어머니 - 이 인물들 사이의 상호성은 이 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젊은이들의 연약함과 주님의 능력, 구원의 필요성과 주님의 은총, 기쁨에 대한 열망과 생명의 선물 사이의 만남은, 이제 그의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그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의 삶의 악보는 모두 이 주제로 쓰여지게 되며, 그에게 알맞게 쓰여질 것입니다. 모든 조화로운 잠재력으로 그것을 이루어 내는 것이 그의 사명이 될 것이며, 그는 자연과 은총으로 받은 모든 선물을 거기 쏟아 붓게 될 것입니다. ⁽¹⁾

젊은이들과 하느님과의 만남의 특권적인 장소는 모든 시대와 상황에 대한 돈 보스코의 카리스마가 육화된 거룩한 땅인 안뜰입니다. 하느님은 꿈에서 젊은이들이 놀고 즐기며 대조와 다툼의 부정적인 경험을 체험하는 안뜰로 표현되는 젊은이들의 세계로 오십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그는 그들 사이에 와서 그들의 일대일 관계의 공간에서 그들 사이에 있기를 원합니다.

‘육화된 말씀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이 그분께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그분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같은 방식으로, 꿈은 당연히 의심의 여지없이 요한을 젊은이들의 일상적인 삶의 장소로 보냅니다. 따라서 그는 젊은이들이 성장하는 평범한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악마의 속임수 중 하나는 젊은이들이 거룩함은 쾌활하고 활력이 넘치는 그들의 욕망과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썼는데, 이는 그는 꿈에서 직관한 교훈을 성숙한 형태로 돌려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후 그의 성직자로서의 영성의 중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안뜰은 신에 대한 마음의 태도와 관련된 가장 깊은 핵심에서 교육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꿈은 은총에 대한 원래의 개방적 공간일 뿐만 아니라 악의 추악함과 죄의 폭력이 숨어 있는 저항의 심연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의 교육적 지평은 단순히

자선적인 것이 아니라, 솔직히 종교적이며 자기 개발 뿐만 아니라 회심의 상징을 단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소년들로 가득 차고 주님께서 거주하시는 꿈의 안뜰에서 미래에 오라토리오 안뜰의 교육적, 영적 역학이 무엇인지 요한에게 드러냅니다. (2)

『준비된 젊은이』에서 악마의 속임수 중 하나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거룩함이 행복해지고자 하는 열망과 생기 넘치는 활력과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꿈에서 직관한 교훈은 성숙해졌고 나중에 그의 영적 가르침의 중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안뜰은 하느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와 관련된 교육의 가장 깊은 핵심에서부터 시작하여 교육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꿈은 거기에 은총에 대한 원래의 개방성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악의 추악함과 죄의 폭력이 도사리고 있는 저항의 심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꿈의 교육적 지평은 자선 활동뿐만 아니라 솔직하게 종교적이며, 자기 개발뿐만 아니라 회심의 상징을 무대에 올립니다. 아이들로

가득 차고 주님이 거주하시는 꿈의 안뜰에서 오라토리오 안뜰의 미래 교육적, 영적 역학이 요한에게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2)

그러므로 선교의 지평은 자선사업이 아니라 종교적이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진정한 필요이며, 하느님을 향한 열망은 모든 인간의 진정한 원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살레시오 오라토리오에는 교육을 하느님의 일로 간주하며, 살레시오 교육학은 은총의 교육학으로 사물, 도구, 활동, 전략, 기술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삶을 소명과 사명으로 해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엔리코 스타시 신부 - SDB

(1) - A. BOZZOLO, 아홉살 꿈의 해석학적 질문과 신학적 독서, LAS, 로마 2017, p. 252

(2) 위의 책, p.253

나자렛. 하느님의 모든 가족

소개

하느님의 영원한 신비 안에서 성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 안에서 비추어지고(요한 5,26-27),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권유하시는 아들 안에서 비추어지듯이(마태 17,15), 그리고 모든 자녀가 자신에 대해 어머니에게 배우듯이, 미소의 광채, 가슴과 손의 부드러움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주십니다. 모든 가정은 모든 가정의 구체적인 이상인 성가정 안에 비추어짐으로써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평범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곧 하느님이 계신 가정, 하느님이 거주하시는 가정,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요한 1,14) 육화의 신비가 계속되는 가정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쓰여진 이 작은 묵상집에서 우리는, 가족 관계 안에서의 파열을 막아 평화를 다시 찾고, 정서를 조절하고 분노를 극복하며, 하늘의 것에 비추어 땅에서의 지혜가 자라게 하기 위해, 하느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나자렛으로 갈 것입니다. 마리아의 받아들임과

예수님께서 선물이 되신 은총으로, 지상의 것들이 하늘로 향하게 되었고 하늘의 것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가족에게 바치는 아름다운 사도적 권고 「사랑의 기쁨」에 제시된 한 구절에서 이 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권고에는 모든 가정이 나자렛 가정이라는 구체적이고 훌륭한 이콘이 주어졌습니다. 그 이콘은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이콘이 아니며, 너무 천상적이고 너무 완벽하여 일반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의 경험은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가정이 단순한 방법으로 영감을 받고 희망할 수 있는 이상, 곧 예수님과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마리아와 요셉의 전구를 청하는 이상을 대표하고 실현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최초의 “그리스도인 가정”의 겸손, 용기, 인내, 믿음으로 사랑의 시련에 직면하는 법을 배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매우 구체적이고 빛이 되면서도 극적인 말씀을 따라 나자렛의 신비 속으로 우리도 들어가 봅시다.



나자렛 성가정의 모습은 모든 가정에 빛을 비추어 줍니다. 나자렛 성가정은 헤로데의 무자비한 폭력을 겪어야 했던 때처럼 하루하루 힘겹게, 심지어 매우 끔찍하게 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엔 쫓겨나고 무력한 많은 난민 가정들은 여전히 이러한 경험을 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 가정들은 어머니와 함께 있는 아기 예수님을 뵙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라는 초대를 받습니다(마태 2,11 참조). 가정들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가정이 직면한 도전에 마리아처럼 용감하고 침착하게 맞서며 하느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루카 2,19.51 참조). 마리아께서는 모든 가정이 겪는 경험



또한 당신의 마음 안에 소중히 간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리아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여, 가정생활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사랑의 기쁨 30항).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하느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가족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세상에 살았으므로 실존했던 가족입니다. 모든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성가정에서도 꿈과 악몽, 친구들과 적들, 부와 가난, 기도의 시간과 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길과 그분의 부르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즉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로베르토 카렐리 신부-SDB

겸손하고 가장 뛰어난 피조물 - 통합생태학의 스승이신 마리아와 함께 걷기

1. 돌보는 어머니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단 한 항 (241항)에서만 마리아의 존재와 창조에서의 역할에 대해 바쳤습니다. 이 조항은 간결하지만 매우 밀도 있는 내용으로, 무엇보다도 마리아를 “**예수님을 돌보신 어머니**”이자 “**이 상처 입은 세상을 모성애로 함께 아파하며 돌보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3년 새해 첫날 삼중기도 메시지에서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돌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이 간결한 표현에 대해 특별한 해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좋은 새해를 원한다면, 희망을 재건하려면, 이기심에서 비롯된 언어, 몸짓, 선택을 버리고, 돌봄이라고 하는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돌봄은 이기심의 언어와 반대되는 새로운 언어입니다.**”

“새로운”이라는 형용사는 돌봄의 언어에서 두 가지 특별한 측면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돌봄의 언어가 하느님의 사랑의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언어라는 점, 즉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돌봄은 사실 그 자체가 복음이며, 아버지의 얼굴에 대한 계시라는 점입니다. 둘째, 돌봄 윤리에 대한 체계적인 성찰은 오늘날

이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담론의 기원에 있으며, 이는 지난 세기에 여성이 철학과 신학에 입문한 결과입니다.

돌보는 능력이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발달에 관한 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잉태의 순간부터 시작하여 받아들여짐, 보호, 영양 공급으로 나타나는 어머니의 보호가 없다면 세상에 태어나는 그 누구도 결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 필요성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필요했기 때문에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여성의 보살핌에 자신을 맡겨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황은 새해 첫 메시지에서 마리아를 돌봄의 모범이자 모델로 확실하게 제시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았던 신비를 경이로움으로 맞이하고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했으며 무엇보다도 복음에 의하면 “구유에 누워 있는”(루카 2,16) 아기를 돌보았습니다. “adagiare”라는 동사는, 조심스럽게 눕히다는 뜻으로, 이 단어는 마리아가 아기를 부드럽게 돌보는 모습의 모성애의 언어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이를 돌보는 데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리아 곁에 있던 요셉의 존재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몸과 마음, 마음과 시간 등 전 생애를 바쳐 새로운 인간을 돌보아야 하는 임신부에게는 돌봐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돌봄의 언어는 공동체 언어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유명한 속담을 통해 이러한 지혜로운 인식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돌봄의 원래 장소는 단순히 엄마와 아이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더 넓은 관계망을 포함한 관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파혼하려고 했을 때, 하느님이 보낸 천사가 그에게 엄마와 아기를 돌보는 책임, 즉 돌보아달라고 초대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돌봄을 받고 줄 수 있는 능력이 꽃피었다면, 돌봄의 언어가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발전하는 곳은 “팀워크”, 상호 돌봄이 있는 가정생활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 안에서 그리고 학교, 본당 및 기타 교육 사업이 될 수 있는 더 큰 가족 안에서, 이것은 성인, 부모, 교육자로서 우리를 기다리고있는 큰 도전이자 소명입니다. 새로운 돌봄의 언어를 통해 자신을 더욱 잘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점차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말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십시오. 돈 보스코는 이를 ‘가족정신’이라고 부르며 사회의 미래는 이 언어의 전달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국제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도 돌봄 교육과 평화 교육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하시며, 모든 신자들에게 “미래 건설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시 인식”하도록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위기, 전쟁의 비극에 직면한 우리는, “책임과 연민으로 세상의 도전에 맞서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함께 공동의 집을 돌본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불신과 무관심으로 오염된 이 시대에 우리가 연민과 보살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필요한 만큼 자주 내 앞에 있는 이 앞에서 감동하고 멈출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 간청합니다.”

교황께서는 또한 치유의 구체적인 단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 **우리 각자의 삶을 돌보는 것** - 우리 각자는 자신의 삶을 돌보아야 합니다 - 우리의 시간과 영혼을 돌보아야 합니다.

- **창조물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돌보십시오.**

-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이웃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관심과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형제자매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이웃을 돌보도록 초대받는 순서는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처음 두 가지 돌봄의 방향은 세 번째 돌봄의 기초가 되며, 이는 실제로 가장 중요하지만, 다른 두 가지 없이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프란치스코가 그토록 원했던 ‘생태적 회심’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이 돌봄이라는 새로운 언어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손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이 여정에서 성모님의 현존과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린다 포케르 수녀-FMA

가족의 연대기

동티모르 - 준관구 TLS의 아드마 신규회원 158명

6월 24일 파투마카 국립 성지에서 158명이 동티모르 살레시오 준관구(TLS) 회원으로 서약했습니다. TLS 준관구의 부관구장인 마누엘 핀토 신부가 미사를 주례했으며, 마누엘 시메네스 신부와 4명의 사제들이 공동 집전했습니다. 서약미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많은 ADMA 회원들이 회장과 협조자, FMA 수녀, 부관구장인 에반젤리나 자비에 다 코스타 수녀(FMA), 신입회원 가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강론이 끝난 후, 입회지원자들은 성모님의 덕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인 생활을 통해 성모님의 증인이 되고 성모님 신심의 전파자가 될 것을 서약했습니다. 새 서약자는 성모님 메달과 ADMA 규칙서를 받았습니다. 미사 끝에는, 성지 앞에서 ADMA TLS는 가족회보의 첫 번째 호의 출판 발표가 있었습니다.



케냐 - “마리아의 부르심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2023 마리아 대회



살레시오회 동아프리카 관구(AFE)가 주최하고 ‘돈 보스코 어퍼 힐’ 센터의 도움이신 마리아 성지에서 열린 2023 마리아 대회가 7월 1일 AFE 관구장 사이먼 아시라 리푸쿠 신부의 집전으로 장엄한 미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미사는 내년 8월부터 2023~2029년까지 탄자니아 ‘성 아르테미스 자티’(TZA)의 새관구장을 맡게 될 조지 타라니일 신부와 탄자니아의 새 관구 ‘성 아르테미스 자티’(TZA)의 에밀리우스 살레마 슈페리어 신부가 공동집전했다. 또한 ADMA 세계 영적활성자인 알레한드로 게바라 신부도 함께 했다.

마지막 날은 아프리카의 독특한 기도 장소인 부활의 정원까지 약 10km를 순례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20

명씩 조를 이룬 850여 명의 참가자들은 묵주기도를 바치고 마리아 성가를 부르며 이 순례에 참여했다.

도착하자마자 순례자들은, “기도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하느님은 때가 되면 응답하시니, 기도에 지치지 말자”는 환영을 그곳 책임자 사제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어서 화해의 성사에 대한 강연이 있었고, 모두 개별적으로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어 나이로비 명예 대주교인 존 쥬에 추기경이 미사를 집전하며 살레시오회와의 친밀감을 표현하였으며, 마리아 대회를 개최해 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 후 부활의 정원의 역사가 참가자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기도의 장소는 오직 기도만을 위한 공간을 꿈꾸던 고 모리스 오통가 추기경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추기경은 성덕으로 가는 길 위에 있으며, 바로 이 부활의 정원에 묻혔습니다. 이 날은 도움이신 마리아 성지의 합창단이 이끄는 마리아 찬송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은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루카 1,38)”라는 주제로 마리아의 삶과 우리의 삶에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이날의 상징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같은 주제로, 하느님께 ‘예’라고 말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만나기 위해, 서둘러 일어나 떠납니다. 이런 메시지는 “우리는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하러 나가기 위해 준비가 되었습니까?나가서 봉사할 준비가 되셨나요? 어디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클레멘트 마자와 교수는 기조 연설을 통해 “**삶에서 하느님의 뜻 받아들이기**”라는 주제로 성경의 진리를 알고, 형성하고,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미사에서 시몬 아시라 리푸쿠 신부는 도움이신 마리아에 대한 돈 보스코의 깊은 신심을 기억했습니다. 알레한드로 게바라 신부는 이 행사를 조직한 위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며, 돈 보스코의 꿈을 계속 이어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 - 2023 아드마 청소년 캠프

2023 스트렌나인 “오늘날 인류 가족 안에서 누룩으로 - 살레시오 가족의 평신도 차원”이라는 주제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회(ADMA) - 2023 청소년 캠프가 열렸다.

처음에는 ‘마리아를 위한 300명의 젊은이들’이라고 불렸던 이 단체는, 파푸아 뉴기니의 살레시오회 첫선교사인 고 발레리아노 바르베로 신부에 의해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ADMA 청소년’으로 발전했다.

이 캠프에는 포트모르즈비 가톨릭 학교 학생과 활성화자들을 포함하여 268명이 참여했다. 첫 번째 세션은 파푸아뉴기니 및 솔로몬제도 관구(PGS)의 그레고리오 비코몽 준관구장 신부가 진행했으며, 그는 젊은이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적용하고 사회 변화의 주체가 되어 누룩의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두 번째 세션은 살레시오 협력자 셰릴 엑스트라 이소아이모가 평신도의 관점에서 총장의 ‘스트렌나 2023’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룹대화 후 각 학교는 학교 마리아 그룹에 활기를 불어넣고 인근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자체 프로젝트 개발 요청을 받았다.

이후 참가자들은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 고취를 위해 PGS 준관구에서 성지에서 주최하는 마리아 전시회를 관람했다.

남부 멕시코 - 아드마 선거 총회

멕시코 틀라잘라 주에 있는 카사 델 움브레 누에보에서 2023~2027년 동안 멕시코 남부 과달루페 성모 관구를 이끌어갈 새로운 관구위원 선출을 위한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총회는, 우르바노 로드리게스 히가레다 SDB와 루즈 마리아 마르티네스 FMA 수녀와 함께, 관구위원장에게 의해 소집되었다. 2019-2023년 마르타 앙헬리카

니에토 레예스 멕시코 남부 관구위원 선출을 위해, 미리 계획되었던 활동이다.

이날 행사는 미초아칸, 푸에블라, 치아파스, 에스타도 데 멕시코, 멕시코시티, 이달고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 주 내 17개 ADMA 지회를 한자리에 모으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가족의 연대기

새 관구위원장 선출은 축복의 성사, 성체성사, 성령께 대한 찬미, 성모님 행렬, 살레시오 성덕과 ADMA의 원인에 대한 발표, 에프렌 산체스 신부와 후고 에레라 신부의 고해성사 등 축제와 영성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대회 둘째 날에는 “성령의 거처인 마리아처럼”이라는 주제로 후안 아론 세레조 신부(SDB)의 강의를 있었는데, 이는 참가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양성의 장이 되었으며, 이어 참석한 ADMA 회원들을 위한 휴식과 유쾌함의 순간으로 이어졌다.

이나시오 오캄포 SDB와 말가리타 차바리아 FMA 수녀는 선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새로운 관구위원들을 선출했다고 발표했다. 알레한드로 고메즈 ADMA 후베닐 세주사 코아칼코-관구위원장, 자클린 마르티네즈 ADMA 라우라 비쿠냐 코아칼코-부회장, 넬리 마리차 자라밀로



ADMA 돈 보스코 인스티튜토 CDMX-재무, 마리아 콘첵시온 카란코 ADMA 로라 비쿠냐 코아칼코-비서, 안드레아 에르난데스 ADMA 마리아 아우실리아도라 오코조코아우틀라 치아파스-양성, 앙헬 라몬 메데인 ADMA 후베닐 세주사 코아칼코-홍보 관구위원으로 우리의 기도에 이들을 맡긴다.



내가 · 너에게
스승을 · 주겠다

도움이신 마리아 제9차 대회

파티마 2024년 8월 29일 - 9월 1일

2023년 9월 24일부터 등록

www.mariaauxiliadora2024.pt

기사와 사진 보내기

여러분이 수행하는 양성 모임, 도움이신 마리아 24일 기념, 봉사활동의 기사와 사진 제목과/또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사(.doc 형식, 최대 1200자 공간 계산하지 않음)와 최대 2장의 사진을(jpg디지털 형식 및 너비 1000px 이상의 크기)

adma@admadonbosco.org 로 보냅니다. 이메일 “가족 연대기”의 제목과 텍스트에 저자의 자료를 표시하는 것 (이름, 성, 촬영 장소, 소속 Adma, 도시, 국가)은 필수적입니다.

보냄으로써, ADMA는 항상 저자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기사와 사진을 처리하고, 출판하고, 부분적으로라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이미지는 편집진의 재량에 따라, <https://www.admadonbosco.org> 사이트 및/또는 다른 ADMA 출판물에 제목과 저자의 이름과 함께 발행될 수 있습니다.